

월간 증 현

The Monthly Chung Hyeon

'82 10 월호



책을 많이 읽자

— 독서하는 습관을 키워야 —

독서의 계절이다.

많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쓰는 일이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천에 옮기려고 보면 잘 안 되는 것이 독서이다.

흔히들 당신의 취미가 무엇이라고 질문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독서」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나 실상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런 대답을 하는 이는 별로 없다는 얘기도 들곤한다.

꼭 가을철만이 독서를 하란 법은 없으나, 우리들의 기분이 '가을하면 독서'라는 평상적 상식이 잊었던 독서 열의를 깨우쳐 주곤 하는 것 같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까운 일본보다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고 한다.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혹은 책 읽는 그 시간에 더 급한 일이 많다는 것이다.

또 이와 반면에는 꾸준히 독서를 하는 이도 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들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겠지만 어떤 이들은 책 읽는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가는 심정으로 대하는 이가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매우 바쁘다. 특히 도시 생활의 삭막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고, 황량한 가슴 속에 황금만능의 사상만 팽배해 있어 정서적인 환경이 결여되어 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준비하는 꾸준한 작업과정 보다는 당장 실현되어 결실을 얻으려는 조급한 생각등이 실수와, 패배를 가져오는 경우를 주위에서 보아왔고 들어왔다.

이런 실패의 주요 원인은 우리 마음 속에 풍요스런 생활양식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의 영역에서 제일 깊게 심어져야 할 것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지적 덕양인데,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제대로 교육되지 못해, 말(言)에 실수가 있고, 대인관계에 장벽이 있으며, 이웃을 헐뜯는 파렴치 인간으로 타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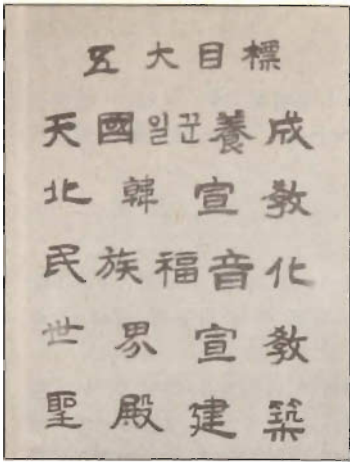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책을 읽으므로 인해, 감정을 와해시키는 방법을 알고, 무궁무진한 진리의 심오한 뜻을 되새겨 생(生)에 대한 애착을 가지며, 인간관계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정립해서 실천함으로써 부드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비신자보다는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항상 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 많이 읽으므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충족감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필수독서는 두말할 필요없는 「성경」이다.

매일 매일 성경을 읽으므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성장에 도움을 얻게되고, 흔들리기 쉬운 교회관과 구원관에 자신감을 갖고 말씀 사수에 앞장을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상고하는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바른생활” “진리함양”에 최고의 독서임을 표명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성경 이외에도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서 「이단」에 대한 바른 견해, 대화의 막힘없는 화술을 진작시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책 읽는 습관을 몸에 배게해서 두뇌활동의 건전화와 빠른 판단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대개들 일정한 학교 교육을 끝낸 사람들이 책읽고는 답을 찾고 있어 건전한 사회생활에 암적 존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가을엔 한 수레의 책을 읽어보는 심정으로 좋은 책을 많이 읽기를 권유해 본다.



중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30일 창간 제10권 제 9 호 통권 103호

1982년 10월호 차례

- 권 두 언 / 책을 많이 읽자 손경수 · 2
- 이달의 말씀 / 너는 누구냐 김창인 · 4
- 지상특강 / 심령과학의 정체 및 성경적비판 주영훈 · 6

□ 특집 · 교회성장세미나

- ◇ 하나님이 성장케 하는 교회 박조준 · 10

-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⑧ / 직업관
 -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 육한홍 · 13
- 성경강해 ① / 이사야서
 -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김창인 · 16
- 자상논단 ④
 - 복음과 전도 조영길 · 18
- 특별기고 / 계절학교 총결산
 -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 이종국 · 22

- 10월의 시 / 십자가의 말을 듣세 김연이 · 24
- 물 맺 돌 /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29
- 선교사 통신 / 의료사업 위해 기도를 엘리야 겔간 · 25
- 해외에서 온 편지 / 45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김동표 · 26

- | | |
|-----------------------|---------------|
| 선교사 · 선교지 소식 28 | 교계소식 30 |
| 이달의 교우동정 31 | 교회소식 32 |
| 10월의 행사 34 | 편집후기 34 |



표지설명 / 사진은 주일학교 유치부 성가대 어린이들이
기도송을 합창하는 모습이다. 청명한 결실의 가을을
맛이하여 우리들도 이 천진스럽고 사랑스러운 유아들
의 마음과 같이되어 겸허한 자세로 남은 이 해를 매들
지음에 있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
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 이달의 말씀

너는 누구나

〈눅 13 : 1-9〉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눅 13 : 7-9)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나는 누구와 비슷한가?” “나는 누구와 같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처형을 하고 그 뜨거운 피를 뿜아 제물에 섞어서 제사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사람이 나쁜짓을 많이 해서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당했다. 우리는 다 의인이니 그런 형벌은 안받을꺼야’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면 보고한 사람이 기분이 좋았겠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형당한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실로암 못가에 있던 탑이 무너져 18명이 치어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망할거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예를 들어 말하마. 여기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다. 주인이 3년이나 와서 열매를 구하려 했지만 한번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때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했지만, 동산지기가 ‘1년만 더 참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에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했다.”

오늘 이 세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는 과연 열매를 맺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할 기회를 1년만 더……

새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는 무슨 동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맺벌을 명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욕이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죄는 내 양심부터 썩게 합니다. 죄를 범한 다음 때가 되면 내 욕심은 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적절 거짓말을 하고, 남의 집애 불을 놓고, 도적질해서 범죄한 사람 만이 형벌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을 못한 사람도 형벌받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늘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의 책임이 또한 있다는 것을 꿈에도 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의 위치에서 책임을 감당하여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자신은 평안을 누리면서 성공의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눈이 어둡거나 일하기가 싫어서 계속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비록 열매를 못 맺었지만 금년만 참아주세요.” 기도하여 일할 기회를 1년 더 주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죄값으로 망하지도 않고 남이 범죄한 것을 저주하고 이를 기뻐하다가 아니 내 죄를 숨겨 두었다가 형벌받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열여덟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빌라도가 사형집행한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울어주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또한 내 죄를 가슴치는 눈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한결을 더 나아가 열매맺는 신자가 됩시다. 여러분은 지난 8개월동안 무슨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하여 땀흘려 땅을 밟시다. 그리고 거름을 줍시다. 내 물질과 정성을 쏟아 넣읍시다.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비추고 비와 이슬을 맞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정성을 바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말입니다. 이슬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내리고 햇빛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오면 우리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도 열매 맺은 것처럼 외식하지 말고 안심하지도 맙시다. 우리의 책임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는 날이 올까봐 겁이 납니다. 나무가 찍혀 버리는 날, 그날이 죽는 날입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끊어지는 날이 시체가 되고 우리 육신은 영혼이 떠나는 날에 시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그때부터 시체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시체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금년 나머지 석달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면서 성령님의 은혜 간구하여 은혜 받아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여, 나는 누구와 같습니까?

- 죄를 범하고 빌라도의 손에 사형집행을 당한 자와 같지 않은가?
-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열여덟 사람과 같지나 않은가?
- 3년이나 열매 없다고 찍어버릴 선언 받았다가 간신히 기회를 얻은 무화과 나무와 같지는 않은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지난날의 죄를 숨겨두지 맙시다. 어떤 죄라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기회놓이지 말고 회개하고 두루 파고 거름주고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여 선했 열매 맺는 운동을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칭찬하고, 열매를 맺으면 과원지기가 버젓하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종이 기뻐하시어, 사랑해 주시면 여러분은 영육간에 성공하는 천국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원컨대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열매 맺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심령과학의 정체 및 성경적 비판



주영흠

(이학박사 건국대교수)

서 언

요즘 심령과학이라는 말이 한국교회에 많이 거론되고 있고 교역자들께서도 평신도 지도상 이미 내용을 다 검토했으리라 본다. 상당수의 분들이 그것을 읽고 매우 흥미롭거나 영에 관한 문제이니 아마 우리교회에 유익한가보다 하는 이런 분들이 생겨서 여러 교회에서 조금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는 흥미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일곱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일곱번 일어나면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미 분별할 수 있는 법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지금 여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다. 한번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 처음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요새 심령과학이라고 나오는 것은 일부 과학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과학이라고 붙인 것이다. 원래 이름은 심령과학이 아니고 정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종교까지 휘어잡는 마술사들의 마술이다. 이 마술이라는 이름으로 20세기 후반에 출현하면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아주 잘 지은 셈이다. 원래 초심리학, 그 다음 단계가 심령과학이라고 했다.

젊은이들은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회한한 일들이로구나.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하고 추종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마귀의 세계이다. 심령과학에 관한 책은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단한가자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 것은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들에게 여러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한번도 피기, 이상한 일, 누구를 마취시키거나, 최면에 걸거나 하신 일이 없다.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인류에 대해 사랑을 베푸신 이후, 하나님은 단한번도 우리들에게 최면을 걸거나 마취시킨 일이 없다. 언제나 정신이 맑은데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꿈속에서라도 기억이 확실하게 해주셨다.

이런 경험이 없기를 원하지마는 꿈속에서 흐리멍덩한 것을 본 분들은 극히 조심하시기 바란다. 자나깨나 우리가 주님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다가 꿈을 꿀 적에도 기도해야 한다고 느끼면 그속에서도 기도해야 한다. "쉬지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지시하고 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성경은 영들을 분별하는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요일 4:1-4)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중 적어도 몇분은 영들을 분별할 능력을 받았을 것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구별이 되어 있었다. 즉 진리의 영은 성령이시고 미혹의 영은 피조물이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 영"이라고 해서 다같은 영이 아니다. 이것도 구별 못한다면 이미 그분은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영" 구별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 말씀대로 결국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마귀가 여러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속인다.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톨릭 교황으로도 나타나고 수녀처럼, 또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탈을 쓰고, 오해 없기를 바라지만 목사, 장로의 탈로 나타나기도 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다 속일 수는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까지도 가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식기도할 때 비몽사몽 간에 광명의 천사

가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앞에 무릎 꿇지 말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그 천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만류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말을 빼버리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면 제 아무리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이 속아 왔는지 모른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 속이는 경우가 있다. 우리들이 언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화가가 그려놓은 상상화에 불과한데도 “아, 비슷하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한다면 벌써 신앙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열심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단의 딱지가 붙었는가?

그중 한 사람이 문선명이다. 그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파탄을 당



◇ 강연중인 유영호 교수

했다. 속지 말아야 한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도 가짜 예수까지도 가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으로만 그치지 말고 가급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다 외워야 한다. 길지만 이렇게 불러야 한다.

그런데 마귀들이 다른 것 다 가장하고 위장하지만 절대 못하는 것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갈라디아서 5장의 사탄의 열매인 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별해서 강조해 주시는데 그것은 사탄이 아무리 위장한다 해도 얼마 못가서 탄로나고 말기 때문이다. 속아있을 때에는 육의 열매가 나왔는데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질질 끌려 간다. 이래서는 결코 안된다. 결단을 내려 단호히 끊어버려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부류가 있다. 다른 사람이 성령의 열

매를 맺느냐, 아니면 육의 열매를 맺느냐 하고 열심히 살피면서도 자기 자신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살피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가느니라”고 경고해 주고 있다.

여러분, 심령술사들 중에는 심령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오는 존재들이 있고 이 이름을 붙이지 않고 심령과학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같은 것이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이 심령과학에 대하여 또는 이와 유사한 일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대처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이제 심령과학 중에서 몇 가지를 택해서 취급해 보고자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먼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왔다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사생활에서 성경에 기록된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소문만 듣고 따라가면 결국 말려들게 되고 만다.

예수님은 단 한번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린 자를 이용해서 선전하신 일이 없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일이 거의 없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간 부자와, 문둥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낙원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문둥병 앓던 나사로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적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은 천국이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예복도 엘리야도 천국에 간 사람이 없다. 예수님 이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고 예수님 이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것이 성경말씀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다. 예수님이 언제 죽은 자가 죽어서 가보니까, 강가에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다가 자기가 나타나니까 “네가 올 때가 아닌데 왜 왔느냐”하는 식으로 말한 일이 없다. 사실상 사람이 “죽음”을 제대로 모른다. 심장이 딱 멎는 순간 죽었느냐, 뇌파의 시그널이 멎는 것이 죽었는지 모른다. 과학적으로 죽음을 알게 되면, 과학적으로 생

명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죽음도 생명도 모르고 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의 마지막 판정은 썩어나갈 때이다. 의학적으로 죽었다 판정내린 사람이 살아날 때가 있다. 부활이 아니다. 그것은 안죽은 것이다. 죽었다면 썩어야 한다. 나사로처럼 썩은 냄새가 나야 한다.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 즉, 정신적인 면에서 아주 강한 사람이다. 마치 육체적으로 강해서 스포츠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 가운데 백만명 중에 한두명꼴로, 자기의 육신이 자리에 누워있는 채 자기가 공중에 떠서 자기의 몸을 내려다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몰라서 미신이니, 미쳤느니 하고 말았지만, 조사를 해보니 까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초능력자라고 불러준다. 그런 종류가 40종 밝혀졌다. 그 능력은 수없이 많다. 기운이 많아서 예배당 건축할 때, 남들은 20개 지는 벽돌을 자기는 40개 지고 올라가는 것 나쁜일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올바르게 써야지 그렇지 못하면 사고이다.

초능력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5000km 떨어져 있으면서 남이 한 이야기를 다 듣는 사람이 있다. 5천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과 자기 의사를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종류가 40종이다. 이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전세계에 나와 있는 초능력의 병치료 가운데 대부분은 마귀의 치료이다. 마귀의 치료법은, 그 사람이 아파하는 육신의 고통을 고쳐주는 척한다. 근본적으로는 고칠 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나았다. 신유다 하고, 떠든다. 얼마 지난 다음에 전문의가 조사해 보면 재발, 악화되어 있다. 사실은 육신의 병을 고쳐 주는 척 하면서 악령의 토막을 접어넣어 주었다. 그것이 새끼마귀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유라 하면서 귀신유를 시켜버렸다. 이런 사람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 대개 용한 귀신유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다가 저기 뒤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면 기운이 쑥 빠져서 “오늘은 몸이 좀 불편해서...” 하면서 도망친다. 신유는 무엇인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신유이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육신의 병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쳐주셨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찬미하고 성령의 열매가 더욱 많아져 간다.

찬송과 기도를 그치지 말라

모세 5 경이나 이사야,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희들은 악령접신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들은 죽은 자의 영과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들은 악령과 꿈속이건 어느 속이건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이 세세하게 나와 있다.

사탄의 이름을 물들 권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레기온입니다” 한 사람에게 마귀가 7천개나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와 대화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우리들이 할 일은 오직 한가지 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뿐인 것이다.

오늘날 몇몇 사람들이 사탄을 구축하는데, 이제는 능수능란해져서 예수님처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 우리는 마귀와 대화할 권한이 없다. 예수님만 하시게 되어 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해야 한다. 걱정하지 말라,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은 조심하기 바란다. “아,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밀려갔던 마귀가 다시 들어온다.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능력이 없어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마귀를 쫓아낼 능력이 있게되면 그것은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정신병원의 환자에는 두가지가 있다. 세상살이가 어려워져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 마귀에 의해서 미친 사람—그러니까 보통 병 걸린 사람은 금방 고쳐진다. 그러나 마귀에 의해서 미친 사람은 어떠한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다. 단한가지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하고 외치면, 여러분이 4복음서에서 보셨던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는 것과 같이 그는 뒤로 나가 자빠지고 입에 거품을 물 것이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다. 곧 깨어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기가 어디지?” 이제는 병이 다 나은 것이다. 마귀가 떠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의 마음이 비면 안된다. 비어 있으면 다시 마귀가 들어온다. 일곱마귀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큰 공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 일에 능력받은 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분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런 분이 할 일은 첫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끊어지면 그날이 죽는 날이다. 둘째로 성경 말씀이 일생토록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나깨나 찬송이 쉬지 아니하면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된다. 소리를 뻑뻑 지르고 손뼉을 쳐야만 기도의 능력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아 입에 넣었는데 뒤따라 마귀가 들어갔다고 했다. 마귀가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코나 입을 통해서 잘 들어간다고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조사해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찬송하는 입에는 마귀가 가까이 올 수 없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초상집에는 함부로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아무 음식이나 마구 먹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고 간 영혼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마귀에게 끌려간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판단해야 한다. 하나님이 데려간 영혼은 다른 것이다. 그 죽음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르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서울 시내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반수 이상은 악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간 순간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한다.

이 세상 사람은 두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악령이 근접하지 못한다. 그 원인은 악령이 무서워 떠는 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마귀의 술책

이런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조상이 세상을 떠났는데 꿈속에서 나타났다. 꿈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떠나고 없다. 그것은 일생 동안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뒤에 붙어다니는 악령이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사당을 지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장한 마귀한테 꾸벅 꾸벅 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사를 교회에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무슨 타협의 여지가 있는가?

이런 일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다. 지켜보면 밤중에 길을 가는데 존경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아버지!” 하고 부르지만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인가? 마귀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가진 세력들의 능력이 대단하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초능력자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찬미하는 채 하면서 전성으로 하는 사람은 다 마귀의 사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마귀를 보고 등을 돌리면 안된다. 거기서 도망치면 마귀에게 당하고 만다. 그리고 마귀와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간다고 그 뒤를 추격해서도 안된다. 추격전을 전개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벗어나서 나가고 마귀의 유인작전에 말려들게 되고 만다. 따라가지도 말고 등을 보이지도 말고 대적하는 것이다.

결 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브라질에는 마술사가 굉장히 많이 있다. 남미 쪽에서는 마술사가 공중에 뜬다. 공중에 떠서 휴식을 취한다. 그럴때 그 근처에 가면 안된다. 이 마술사들이 국민학교 같은데 학생들이 늦게 출석하니까 새벽에 교실에 들어가서 공중에 뜬 채 쉬고 있다. 그런데 한 학생이 학교에 일이 있어서 교실 문을 여니 공중에 어른이 뚱뚱 떠있다. 이 학생은 매우 놀랐다. 그때 울거나 등을 돌리면 당한다. 아이 만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마침 이 어린 아이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기등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저를 여기서 살려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의 L자가 끊어지니 와당당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이 놀라 도망치고 만다. 그러니까 공중에 떠있던 마술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책상 모서리에 뺨하고 떨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다. 이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의 왕국을 분쇄하고도 남는다. 복음선교라고 하는 것이 마귀 왕국을 분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길 수 있는 공식은 이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기고 난 다음에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야 한다.

“오 하나님 저같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쫓겨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셨사오니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가 넘쳐도 좋사옵나이다.” 이런 기도를 잊지 말라.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은 잊어버려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 기억해 두어야 한다.

심령과학에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기고 남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당회장 목사님 이하 여러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들에게 질문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란다. 반드시 승리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장케하는 교회

= 복음을 근거로 굳게 서자 =

박 조 준 목사

(영락교회 담임)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3:5-9)

본문말씀 가운데 있는 아볼로, 바울, 이런 사람들은 은 약간 일치가 되지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 실제로 교역을 해보아도, 어떤 분은 이 목사님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저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되면 이 목사파가 생기고, 저 목사파가 생기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말씀한대로 “아볼로가 무엇이요 바울이 무엇이냐 결국 일하는 분야는 좀 다를 수도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하면서 여기에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어떤 유혹이 들어와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이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내가 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결국 실패하고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이 선을 꼭 넘지않도록 힘쓴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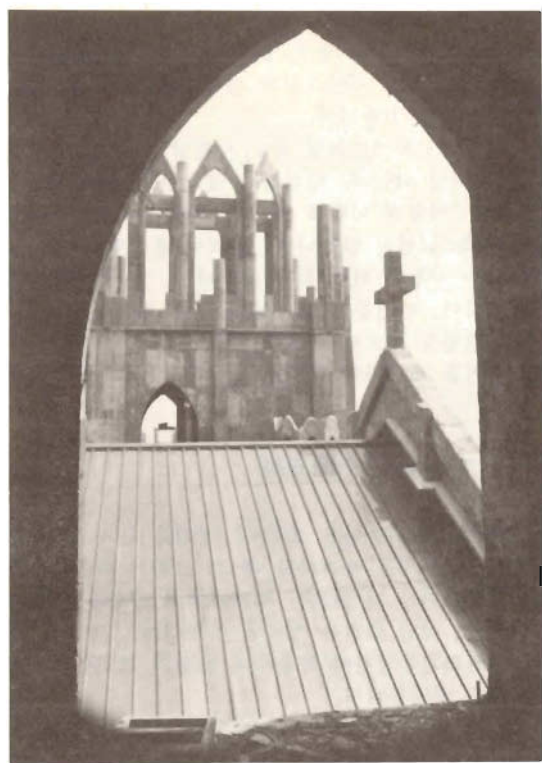
나는 물주는 사람이고 씨뿌리는 사람이며 김매는 사람이고 거름주는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할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가 일하는대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 책임의식

하나님의 교회는 꼭 같습니다.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같은 교회이지만 한 교역자가 교회를 맡아 일하게되면 일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떤 경우, 짐사나 권사 때문에 일이 잘 안되고 어렵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교역자에게 있습니다. 누가 어렵고 저리고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성장 하는데 내가 얼마나 공헌했느냐 할 때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나 물주고 씨뿌리는 것은 교역자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어떤이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다른손이 아니고 우리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입이 아니고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옛날 모세 때처럼 직접 나타나서 돌판을 쓰고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역자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많은 성장을 가져오고 어떤 교회는 성장이 더딥니다. 충현교회로 말해도 29년전에 김창인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 교역하시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0년, 50년, 1세기전, 아니 초대교회가 생길 때부터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왜 어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반면에 충현교회는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교역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성장과 부흥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역자 자신이 꼭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인을 사랑하고 교회에 정성을 쓰면 그 교회는 크게 자라납니다. 또 그 교회가 자라났다고 하면 그 배후에는 보이게 안보이게 정성과 눈물을 쏟은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목회는 반드시 그 목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교회가 축복받는다고 믿습니다.

2. 목회자의 비전

둘째로 목회자에게는 반드시 비전이 필요합니다. 김창인 목사님의 경우 세계선교를 위해서, 북한선교를 위해서,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하실 뿐만 아니라 새성전을 건축하는 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목회자로서의 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자기 생각대로 지은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배당을 하나 지어도,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계획이나 욕심은 사람에게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강한 신념이 있습니다.

지금 영동에 새 예배당을 짓는 것을 볼 때 굉장한데 이런 사역이 거저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요즈음 신문을 보면, “잘한다 못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큰 일을 하느냐”하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 다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또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지 않으면 안될 시대적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집을 지을 때, 돌감는 사람에게 이 집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물어도 모릅니다. 돌감는 것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집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집이 지어졌든 안지어졌든 눈만 감으면 그 집의 모양이 눈에 선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간다는 것을 환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3. 목회자의 신앙

그 다음에는 목회자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고 안믿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하나님은 믿는만큼 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수도 파이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수원지에는 무진장의 복된 생수가 있는데 새끼 손가락만한 파이프를 수원지에 연결하면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많아도 이 파이프를 통해서 줄 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랍드리 파이프를 연결해 놓으면 이를 통해서 폭포수같은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믿음이 작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좌절가운데 빠져서 간신히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의욕에 넘치고 감사가 가득하고 충성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믿음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로버트 홀러는 교회성장에 관해서 말할 때, 신발과 발로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발에 맞추어 신발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신발에 맞추어 발을 자를 것이냐 둘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발이 크는 만큼 그

때그때 신발을 자꾸 키워주면 얼마나 활동적이 될 것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교인이 오는 것을 귀찮아 하고 우리 아는 사람끼리 오붓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데 괜히 새로운 교인이 오는것 보기싫다고 하는 사람은 신발에 맞추어 발을 키워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는 결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회 구실도 제대로 못합니다.

교회는 커야 합니다. 술적이 크고 싶다고해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 목사인들 2천, 3천명 모이기 원치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기회주실 때 교회는 커야 합니다. 충현교회가 현재 4천명이 모이는데 5부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7천명들여가는 예배당에 들어가면 시원할 것입니다. 이 그릇크기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데 예배당을 짓는다"고 불평하고 끊어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를 책임진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지않으면 누가 합니까?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같이 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불평분자를 통해서, 믿음없는 자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충현교회가 성전건축하는 큰 과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수고 많이 하시는만큼 우리 한국역사에 크게 남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줄 압니다. 마귀는 별의별 말을 다합니다. "백악을 들어서 예배당을 짓는다니 이게 될 말인가" 이런 마귀의 소리를 왜 듣습니까? 예배당을 더 많이 지어야지요.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이것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세요. 동남아를 여행해보면 예배당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어디를 가든지 예배당이 보입니다. 이것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공장이 굉장합니까, 정부가 강합니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뿐입니다.

4. 믿음의 훈련

교회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훈련 안된 군병을 제아무리 갖다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무기를 들려준다고 해서 군병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역자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역자가 직접 모든 일을 다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전도를 해도 교인이 감절이 됩니다. 교역자는 교인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목회방침이 될 수 있으면 많은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 자기 나름대로 개성을 발휘해서

교회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금년표어를 "다 함께 일하는 교회"라 정하고 누구든지 교회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5만여명 되고 주일날 모이는 사람이 2만6천여명 되는데, 당회장이 설교한 다음에 광고를 통하여 "이렇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하면 따라하지않는 교인이 없습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모여서 훈련을 합니다. 어떤분은 그러면 불평을 하지만 신앙생활은 편한것 찾으려 한정이 없습니다. 훈련은 고되지만 훈련을 계속하면 교인들은 생동하는 교인이 됩니다.

5. 복음에 근거한 교회

교회성장의 또 다른 요인은, 성경을 근거로 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따라나갈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바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교회의 동향을 보아도 복음적이 아닌 교회는 성장을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간에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는 반드시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주의적인 성경공부를 충실히 해서 전교인의 질적인 성숙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이 병행되게 되면 자연히 그 교회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성장해 나간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수행하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말씀 전파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한, 즉 신학이 정립된 생활을 해야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분명하게 서있는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교회는 부흥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습니다.

충현교회 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충현의 교인들이 왜 충현교회에만 나오니까? 그것은 충현교회가 아니면 얻지 못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아니면 안되는 갈망하는 무엇—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29년전에 세워주신 훌륭한 충현교회가 한국에서 자랑이 될뿐아니라, 세계에 선교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읍니다. 또 앞으로 큰 역사인 대성전 건축하는 이 위대한 과업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대한 사명을 교역자와 성도여러분들이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정성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의 열매를 맺게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고 한국을 복음화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읍니다.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회로서의 직업—

옥 한 흙 목사

(시라의 교회 시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율법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업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직업이란 무엇입니까? 노예생활입니다. 노예생활에서는 성공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생활에 성공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신앙적인 입장에서 노예라는 직업을(일종의 천직) 어떻게 해석합니까? 노예생활을 철저히 바로 하라고 합니다. 이 노예생활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노예생활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할 때 장차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예생활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예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어떤 사명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은 바로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요, 장차 율법의 상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시켰습니다. 우리의 직업에서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업에 대해서 지나친 성공집념을 갖고 전혀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되는 대로 사는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반드시 직

업은 신앙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이란 그 직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지 그 직업자체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검토해야 될 위험성은 세상과의 동화입니다. 세상과의 동화를 우리는 자칫하면 허용하기 쉽습니다. 출세를 위한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술이라든지, 여자, 도박, 거짓말, 여러가지 술수……

이와같은 세속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출세하려다가 세상에 동화되어 크리스찬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해 버리는 가련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타협합니다. 일단은 동화합니다. 일단은 세상사람들처럼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침프의 실예

「그랜해일 침프」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일반회사의 전전부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신자로서는 무척 하기 어려운 직책을 맡아서 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가 은퇴한 다음에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그가 어떻게 그와같은 직업에 성공적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율법의 미를 거둘 수 있었는가를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직책을 지킨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생

활을 항상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내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직장은 나의 선교 터전이라고 항상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종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일터였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탈선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위험에서 나를 지켜 주셨고 타락할 수 있는 위기에서 항상 모면하게 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수단방법 없이도 때를 쓰고도 올라가지 아니한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배경으로 믿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패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패기를 가집시다. 에스더가 가졌던 패기가 중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대로 살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킵니다. 어떤 면에서는 궁지에 몰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돕습니다. 코너에 몰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능한 손으로 끌어 올립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상황까지 믿음

을 지키고 크리스찬의 입장을 바로 지키기 위하여 모험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위기를, 이 코너를 두려워함으로 세상과 타협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위험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직업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표현상 이상한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란 성직과 세상직업을 지나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사회에서 옛세 동안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전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성직자가 된다는 것

제가 자라온 과거의 어느 교단 배경이라든지 40여년간 신앙교육을 받아온 모든 풍토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 90%는 그런 사고에 젖어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가 가는 일만이, 목사가 되는 길만이, 전도사가 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신학교로 보냈습니다만 사회 요소 요소에서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참다운 직업인을 배출하는 데는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모두 거룩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손대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목사 일 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주궁을 받는 것처럼 나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가면 추궁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물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세상 직업을 갖는 것보다 성직자가 되는 것이 주님을 더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보통 생각하기를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여러가지 성직일은 압력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가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압력을 많이 받습니까? 그것이 긴장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훨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인지도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생활처럼 그렇게 압력이 없고 갈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째로 기도와 성경보는 시간을 훨씬 더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째로 자신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코너로 몰아서 드디어 주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문제가 되는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스펀전에게 신학교 지원자가 찾아와서 목사가 되겠노라고 했을 때,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 대답이 자기는 농사를 지어서 실패했고 교육계에 투신하여 교사로서 일했으나 실패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신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스펀전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입학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으.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농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교육사업에 투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육사업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소명에 몰려서 견딜 수 없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왔다면 몰라도 실패가 곧 하나님의 소명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자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생각할 것은 직장을 돈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들어온 수입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고 직업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의 다소가 직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직업을 통해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직업에 최선을

제가 알고 있는 모 집사님은 국제청 직원으로서 큰 도시의 세무서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원이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얼마나 신실한지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멸시하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람입니다. 강릉 세무서장으로 갔을 때에는 아침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성경으로 훈시할 뿐 아니라 세리와 관계되는 성귀들을 전부 발췌해서 복사했어요. 그 복사를 모든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세무원으로서 일할 때에 어떤 유혹을 받든지 양심을 어길 문제가 생기면 꺼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삶이 그 자체가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국제청의 고위간부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한 분이 많습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세무서 안에 성경공부반을 만들고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5명의 부하과장 중에서 4명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실직을 극복하는 길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돌린다는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역시 배경은 없으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번 광주사건때에도 그분이 지키는 세무서는 불하

나 타지 않았읍니다. 서류가 그대로 남아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표창까지 받았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내가 상업을 하든지, 공무원으로 일하든지 교육계에 투신하든지, 연예계에 들어가서 일하든지 그 무슨 일을 하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업은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실직당했을 때, 신앙인으로서 아내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일단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여부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감사하기는 쉬워도, 실직당한 것을 감사하기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감사헌금을 보았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읍니다.

둘째로 이렇게 실직을 하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며, 교훈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도하면서 하나 하나 적어보십시오. 분명히 거기에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을 것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 등록한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미국에서 특허를 내서 판매하는 상품을 만드는 한국공장 책임자입니다. 그 회사 사장은 저도 잘 아는 분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집 다락에 기도실을 가지고 있을만큼 무척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40대 초반의 사장입니다. 그는 이 사업을 10년동안 키웠읍니다. 공장은 한국에 있고 판매는 미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큰 문제를 당했읍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 교회 교인인 한국공장 책임자와 함께, 미국에 있는 회사 사장, 모두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읍니다. 미국의 사장이 보낸 편지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직업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면 정말 마음이 어두운 크리스찬입니다.

세째로 재정건축 전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절대로 빚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실직상태에서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는지를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네째는 가족과 친지와 교회 앞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 보다도 여러 사람의 합심기도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소문내고 다녀야 합니다.

다섯째는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해 줄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받으십시오.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을 받는 것은 겸손이며, 그것은 장차 그 형제가 어려울 때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문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직당해 어려울 때 남의 도움은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입니다. 우리 교회에 실직하고 있는 분이 자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목사님 요즈음 까마귀가 많아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섯째로 많은 곳에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십시오. 편지로, 전화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다를 통해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로 일을 찾아 다니십시오. 크리스찬에게는 절대로 실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직장이 없어졌습니까? 아침 9부터 오후 6시까지 직장을 구하러 다니십시오. 그것도 직업입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직장을 구합니다"라는 프랭카드를 들고 서있는 남자 사진을 보고 굉장히 겁

동했읍니다. 이것도 일입니다. 직업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직을 했을 때는 하루 8시간 철저히 근무를 하십시오. 직업을 찾아다니는 근무입니다.

여덟째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것은 하찮은 일이라도 일시적이거나 그 일을 잡는 겸손을 가지십시오.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 노동일 할 기회가 생겼다면 수입이 얼마 안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아홉째로 직장을 나가지 않는 기회가 바로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는 어떤 교육 기간이 될 수 없는가 하는 점을 깊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직장에서 무능하기 때문에 파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자라고 다 유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하는 점을 고려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약점을 메꿀 수 있는 기회로 실직기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소중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보람된 삶

마지막으로 하나님과도 철저하게 영적 관계를 맺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원에 들어 가십시오. 안되면 금식기도를 하십시오. 단식기도를 하십시오. 더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갱신시키는 하나의 부흥기간입니다. 하나님이 그와같은 기도를 만들어 주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대략 생각나는 바를 잠깐 말씀드렸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행통케 해 주시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람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읍니다. 8월

◇ 찬조헌금 감사드립니다

오세용 (미주한인장로교회)

40,000원

백영숙 전도사 20,000원

익명 5,000원



김창인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서론 :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시대

이달부터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장의 명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심」이고 1장 1절은 이사야서 66장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유다왕 웃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사이라”(1:1)

이사야서는 모든 예언서 가운데 제일 첫째로 꼽습니다. 구약성경중의 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선지 4사람, 소선지 12사람, 모두 16선지자를 꼽는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제일 첫가락으로 꼽습니다.

또 이사야서는 신약성경의 바울서신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진리를 기록해 놓은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년에서 695년까지 55년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큰 선지자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증거하기 시작해서 나이 많도록 55년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구원하신다”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악마의 그물에서 건지

실 분은 하나님 한분이십니다.

웃시아 시대

이사야 선지는 유다 나라의 다섯 왕 시대에 걸쳐서, 왕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장관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웃시아왕의 사촌동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웃시아왕 때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웃시아왕은 16세에 임금에 올라 오래 왕위에 있었는데 농사를 좋아해서 농민을 잘 지도하고 뒷받침을 잘해서 나라의 식량이 넉넉하도록 한 임금입니다.

또 웃시아왕은 평안할 때에 전쟁준비를 잘 해놓고 군대의 훈련을 단단히 시켜놓아서 이웃나라가 결눈질도 못하도록 나라를 잘 지켜서 백성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평화를 이룩한 임금입니다.

그러나 웃시아왕이 잘못된 것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상숭배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좋아해서 농민을 도와주고 평안한 때에 전쟁준비는 잘하고 군사훈련을 잘 했으나, 우상을 끌어 버리는 일은 안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둘째로 제사장 직분까지 월권하려다 문둥이가 되었습니다.(대하26:16-21)

“내가 임금으로 우리나라에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임금님들이 있었지만, 내가 나라를 제일 잘 다스린 훌륭한 임금님인데 절대 못하는 한가지가 있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올라가 제사드리는 것이란 말이야. 내 나라에서 내가 못하다니, 그럴 수 있나? 내가 해보아야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 향단에 임금님이 직접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만류하는 데도 불구하고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노가 향단에 나타나면서 웃시아왕이 당장에 문둥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리하여 웃시아왕은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전 뿐만 아니라 궁전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문둥이는 왕의 책임을 못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갇혀 자매야 합니다. 그런 임금 때에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는 요담왕 때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담은 웃시아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문둥이가 되어 쫓겨난 다음부터 아버지를 대신해서 임금노릇을 16년간 했습니다. 그는 크게 나쁜 일도 없었으나 똑똑하게 잘한 것도 없습니다. 우물쭈물 세월만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째 임금은 아하스 왕인데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못된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의일을 잡아 죽이면서 16년동안 나라

를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다음 히스기야 왕 때에도 이사가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좋은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는 북방 앗수르 나라가 북조 이스라엘을 삼켜 버리고 무서운 세력으로 남방 유다나라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배움을 입고 제단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나타나 앗수르군대 18만5천명이 일시에 침을 받아 죽고 히스기야 왕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죽음에서 해방되어 시련116권에 감사의 시를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임금을 훌륭하게 잘 지도한 선지자가 이사야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므낫세가 등극했는데 유다 왕중에 아하시도 나쁜 왕이었지만 므낫세는 그보다 더했습니다. 이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왕을 책망하다가 므낫세에게 잡혀 톱으로 허리를 잘려 죽었습니다. 나이 많은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순교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문은 왕의 친족이고

② 지식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으리만치 굉장히 넓고 깊은 선생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식이 풍부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③ 용기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겁이라고는 털끝 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누구 앞에서나 가감이 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힘있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④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의의 사람입니다. 불의한 물질이나 악한 세력에 물든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의롭게 하나님 한분만 무서워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

(계속)

전교인 성경공부 안내

번	명	교과목	강사	수업시간	장소	대상
1.	월요일반	사도행전	조영길	매주 월 오전 10시~11시40분	당회실	전교인
2.	화요일반	요한 1서	김경성	매주 화 오전 10시~11시40분	당회실	전교인
3.	월요일반	골로새서	남성호	매주 월 오후 7시~8시40분	동관 3층	전교인
4.	화요일반	학개·말라기	김희보	매주 화 오후 7시~8시40분	동관 3층	전교인
5.	수요일반	마태복음	김창인	매주 수 오후 7시~8시40분	본당	전교인
6.	목요일반	이사야	윤영탁	매주 목 오후 7시~8시40분	동관 3층	전교인
7.	교역자반	성경연구	송인환 정원태	매주 토 오전 10시30분~ 오후 1시30분	당회실	교역자
8.	장로반	디모데서	이진태	매주 일 오후 5시30분~ 오후 6시30분	당회실	장로
9.	권사반	야고보서	김원남	매주 토 오후 3시~4시40분	영아부실	권사
10.	남집사반	디모데서	김창근	매주 토 오후 7시~8시40분	당회실	남집사
11.	여집사반	성경개요	구명신	매주 토 오후 2시~3시40분	동관 3층	여집사
12.	부처장반	교육신학	문창수	매주 화 오후 7시~8시40분	당회실	부처장
13.	권찰반	에베소서	김연이	매주 토 오후 2시~3시40분	당회실	권찰
14.	직원반	디모데서	이두란	매주 금 오전 9시~10시	도서실	교회직원
15.	구역교사반	구역공과	김하진	2,4주 오후 3시30분~5시	유년부실	구역교사
16.	베델반	베델성서연구	박종만	매주 화 오후 7시~9시	청년부실	전교인
17.	베델반	베델성서연구	조준상	매주 토 오후 6시~8시	유년부실	전교인
18.	북한선교반	출애굽기	조준상	매주 월 오후 5시45분~ 6시40분	유년부실	전교인
19.	제일성가반	성도의 생활과성경	조영길	매주 일 오전 10시20분~11시	제일성가대실	제일성가대
20.	여성성가반	성경강해	김하진	매주 일 오전 9시~9시30분	여성성가대실	여성성가대

● 수업기간: 1982년 9월 6일(월)~12월 18일(토), 15주

● 장 소: 충현교회 본당 외 6개처

● 입학자격: 성경 말씀을 체계 있고 깊이 공부하여 신앙인격과 신앙생활의 변화를 소원하는 모든 교인

●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통(본원 소정 양식)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82년 8월 1일~31일

● 등록금: 1과목당 2,500원(교재대는 별도)

● 기 타: 1. 2과목 이상 수강도 가함.

2. 본원 성경 공부와 평신도 훈련 수료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회 제직후보 추천(권찰, 구역장, 집사, 권사, 장로) 및 주교 각부 임원 후보 추천(처과장 및 부장, 부감)시 참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충현성경연구원

복음과 선교

= 성경적 전도론 =



조영길 목사

(제4 지구성방)

V. 전도자의 자격론에 대하여

조그마한 상품을 하나 만들려도 그것을 만들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격자가 필요하다. 하물며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 전도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전하고 믿어야 전하고 받은 증거가 있어야 분명하고 힘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바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였고(요 1:1-2) 예수님께서도 이는 것을 말하고 본것을 증거하노라(요 3:11)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동안 열두 제자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하시어 전도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도록 하시고 능력도 권세도 주신 후에야 실제로 전도하도록 파송하셨던 것이다. (마 10:1, 28:18-19 눅 9:12)

그러므로 오늘의 전도자들도 분명히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7대 자격을 갖추면 전도자가 되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

1.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야 한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마 16:16) 그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들이고(요 1:12)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1:12-13)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야 한다.

(빌 3:20)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와(엡 2:1,5) 육에 속한 자는(고전 2:14) 자격 미달이요 오히려 피 전도자들일 뿐이다. (육에 속한 자란, 자연인으로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뜻한다. Natural man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시지 못한 자가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예수님을 보여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2.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가 나의 구주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함으로(롬 10:9-10)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고(마 28:19) 또한 성령세례도 받은 자라야 한다. (마 3:11, 요 3:5-7)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물세례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며 가시적인 것으로 단회적인 것이지만, 성령세례는 무의식적이고 무형적이며 비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으로 지속적이며 계속적인 것이다. 그리고 성령세례는 물세례 이전일 수도 있고 동시일 수도 있고 그 훨씬 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세례 받지않은 초신자는 전연 전도할 수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한달을 믿고도 전도할 수 있고 10년을 믿고도 전도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격론을 말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란, 이전의 죄악의 사람은 죽어

버리고(롬 6:2 골 2:12)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난 사람을 가리킨다. 철저한 회개를 통한 중생의 체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3.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우리 자신이 죄악과 상관없이 구원 받았는지? 또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에 대하여 분명히 긍정적이고도 자신있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아직 구원 받았는지 아직 구원 받지 못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모르고 반신반의 하고서야 어찌 남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며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이겠는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 신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 13:5)고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확증하라는 말씀의 뜻은 자신을 살피고 증명하라는 뜻이다. 고전 11:28, 고후 8:8)

우리가 하나 명심할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알아야 한다. (요 5:24)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을 믿어야 한다. (롬 10:13, 고전 12:3)

4.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라야 한다.

성령 받은 것은 전도자의 기본자격이요 전도 활동의 시작이다. (행 1:8 요 20:21-22)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로 8:9) 예수님을 주라 입으로 시인하게 되며(고전 12:3) 성령을 힘 입어 복음을 전하게 되고(벧전 1:12하)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전도하게 된다.(고전 2:4) 우리가 믿을 때에 인 치심으로 받은 기본적인 성령 만으로는 부족하다.(엡 1:13) 충만하게 받아야 능력있고 권능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엡 5:18)

저 오순절 성령강림 때의 성령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길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였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을 보라! 그 얼마나 큰 전도의 결과가 나타 났던가?(행 2:4)

하루에 3000명의 회개 운동(행 2:40)
5000명으로 증가 되고(행 4:4)
남녀의 많은 무리들로(행 5:14)
더 많아진 제자들과(행 6:1, 7, 9:31)
큰 무리들이 주께 더하여졌다.(행 11:24)

5. 전도의 사명 의식을 강하게 가진 자라야 한다.

아무리 좋고 새로운 무기를 가진 병사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 속에 싸울 마음이 없는 한 아무리 숫적으로 많은 병사들을 전쟁에 투입한다고 할지라도 그 전쟁은 패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 전도해야겠다는 사명 의식이 없는 한 전도자로서는 자격미달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전도할 사명을 다 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마 28:18-20 행 1:8)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으로 빚진 자 된 것을 알아야 한다.(로 1:14) 빚은 꼭 갚아야지 갚지 않으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다. 채무자의 마음에 항상 불안이 있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그 마음에 참 기쁨이 없다.(눅 10

:20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하였다.(고전 9:16) 어찌 바울에게 만이 화가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6.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을 보아도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믿지 않는 이웃을 보고, 내 민족을 보고도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을 받으라! 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여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정말이지 곤란하다. 사도 바울은 형제와 동족의 구원 때문에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아니하는 큰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양심이 증거한다고 고백하였고(로 9:1-4)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 죄값으로 멸망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여 달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간청한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출 32:32)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 큰 고통과 환란이 있기에 앞으로는 내기 나가서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에 있으면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도무지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렐 20:9)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다는 뜻은 마치 그 마음에 잠자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이 얼마나 전도를 위한 열심이며 하나님을 미나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애절한 마음인가? 오늘의 전도자들도 이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7. 지혜롭고 순결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라야 한다.

예수님은 3년동안 훈련시켜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 12제자를 전도자들로 파송하실 때, 말씀 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 하라"(마 10:16) 고 하였다. 이같은 말씀은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적에도 하셨다.(눅 10:3)

전도자는 뱀 같이 민첩한 행동으로 전도하는 일에 대처하며, 전도자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결하여 사심이나 다른 욕망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마 10:9-10) 그리고 말씀의 상식이 항상 있어야 한다.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다. 알지 못하고 무엇을 전하겠는가? 적어도 신 구약 성경을 한번 이상은 읽고서야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기 때문이다.(막 4:14)

뿐만아니라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마 4:4) 영생을 말씀에서 얻기 때문이다.(요 5:39) 그리고 말씀을 손에 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로 뜨겁게 준비하여야만 한다. 기도하여야 전도의 문이 열린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라!(행 10:9-48) 그리고 바울의 부탁을 보라!(골 4:3 엡 6:19) 기도예의 준비는 성공적인 전도의 지름길이다.

이상과 같은 7대 자격을 갖춘다면 전도자들은 절대로 나가서 당황하거나 부끄러워 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일에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덜어 놓고 전도하기만 하면 되는것은 절대로 아니다. 전도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자격을 갖추는 일이 꼭 선결 문제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VI. 전도의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하여 :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실제로 길거리나 가정을 찾았을 때에 어떻게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하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의 실제적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려고 한다.

1. 돌씩 돌씩 짝지어 전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방법을 쓰셨다. 12제자의 경우에도 그러하였고(막 6:17) 70인제자의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눅 10:1)

① 둘은 증인의 수이다. (신 19:15 마 18:16)

② 둘은 서로 의지가 되고 격려와 용기와 담력을 준다.

③ 서로를 감시 감독하게 하여 열심을 가지게 하여준다.

④ 듣는 이들에게 신빙성을 주게 된다.

⑤ 전도자 파송에 관례가 되었다. (행 13:2-3, 15:27, 15:39-40 등 참고)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바울도 그러하였다.

2. 간단 명료하게 전하여야 한다

현대인의 생활은 너무나 분주하고 시간이 없다. 또한 신경들이 매우 날카롭다. 머리가 다 복잡하다. 긴 이야기를 싫어한다. 간단하고 짧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간단 명료하게 흥미감을 갖도록 전하라.

① 와 보라! (요 1:46, 빌립 같이) 우리 충현교회로 한번 와 보라! 다음 주일(그들에게는 일요일이라고 하여야 알아 듣는다) 아침에 잠깐 시간만 좀 내 주시면 제가 와서 우리 충현교회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②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구원을 받아라. (행 16:31, 바울 같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말하라.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이요

(사 53:5, 벰전 2:24 요 11:25 롬 6:23)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우울 이 모든것은 죄와 죽음에서의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다. 질병에서의 구원이요(마 8:17) 빈곤에서의 구원이요, (고후 8:9 신 15:5)

③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복을 받는 사실을 말하라! (요 3:16) 예수 믿는 것은 그물마음에 영접하는 것으로 복음의 단순성과 진리의 평이성을 말하라. (요 1:12-13)

④ 예수님의 인류 대속사의 핵심만을 간단하게 전하라.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전하면서 그와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강조하라(행 10:34-43) 되도록이면 5분 이내로 전하라!

물론 여기에서 간단한 전도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영리를 읽어 주고 기도해 줘도 좋고, 성경을 펴서 두 세곳의 말씀을 손으로 짚으면서 읽어줘도 좋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전하고 기도하여 줄 수 있다면 잠깐 기도하여 줌으로 마치라.

3. 단도직입적으로 전도하지 말고 처음에는 부담없는 세속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접근하라.

① 미소와 평온한 얼굴로 상대방의 감정을 거스리지 말고,

② 위로와 칭찬의 부드러운 말로 대화의 문을 열라.

③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성 수가동리의 우물가에서 물길러 나온 여인을 대하시듯 말이다. (요 4:6-42)

물 좀달라!는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영생의 생수를 주시기까지 점차적으로 깊이 복음으로 유도하였다. 다정 다감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사람에 관심을 보이도록 하라.

4. 지나친 죄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의 악점을 들추어 공격하므로 충격을 주지말라.

① 당신은 큰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당장

죽는다는 식으로는 전하지 말아야 한다.

② 하나님의 긍휼과 넓은 사랑과 복주심을 먼저 말하라.

③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큰 죄악이요 인류는 다 죄인된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할 것이다.

5.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여 전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전하라. (마 10:20)

① 주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②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 하면서 전하라.

③ 상대방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도와 주심을 믿고 절대로 부끄러워 말고 전하라.

전폭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로 이 사람을 부르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을 확신하면서 사명의식과 보람을 가지고 전하여야 한다.

6. 인간의 지식이나 자람이나 말재간으로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십자가)만을 전하라.(고전 1:17)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지식을 전하였다. 그러다가 실패하였다. (행 17:16-21) 그러나 후에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였다. (고전 2:1-5)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예수님)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내가 본 이야기다.

어느 여 선생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어떤 청년에게 전도하다 그 청년을 교회로 인도해 내지는 못하고 그후에 여러번 만나 교제하다가 그만 믿지 않는 청년과 결혼하여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시부모님으로부터 큰 반대에 부딪쳐서 자기 자신마저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것은 훈련되지 못한 자격 미달자의 전도의 좋은 본보기다.

오직 복음만을 전할진저! ...

7. 절대로 전도하면서 말 다툼이
나 변론을 하지 말라(딤후 1:4-
6:4. 딤후 2:23-24)

① 다른 종교인들을 만날 경우 그 종교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판 말라.

② 비교종교론적인 입장에서 예수 복음의 우월성과 생명성과 구원성에 대하여만 전하여 주라.

③ 절대로 멸시하거나 말썽을
 패서는 아니된다.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사를 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
 여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는 우리 전도자들이 사전에 세
 상 여러 종교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교육받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8. 절대로 강요하거나 강제성을 띠지 말라.

전도자들은 나가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족하다.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고전 3:6) 물론 그 말씀의 씨가 심전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도록 기대하고 기도해야겠지만... (막 4:14, 20)

①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
어야만 한다. (마 8 : 10하 고후 11
: 7)

② 만일 우리가 전한 복음을 완강히 거절한다면 그냥 물러서야 한다. (마 10:14)

③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수하여야 한다. (마 5:11-12)

복음과 말씀의 씨는 썩박과 환란
의 밑거름이 있을 때에 더욱 튼튼
하게 자라난다.

9. 결신자는 이름을 꼭 기록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라.

① 가끔적 결신자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 후에 찾아가서 전도하여야 한다.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이면 계속하여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하여야 한다.

② 하나님께서 결신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의 마음에 뿌리워진 말씀의 씨앗을 새가 와서(사단)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여 줘야 한다. (막 4:14) 돌아와서도 기도하라.

③ 하나님께서 결신자와 그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도고하라.

10. 결신자는 그 다음 주일에 꼭 교회로 인도하여야 한다.

① 씨만 뿌려 놓고 그냥 버려 둔다면 절대로 자라서 결실할 수 없다. 부지런히 돌아보아야 한다. 씨앗이 올라 오는가 올라오지 않는가를 살펴야 하고 수분을 공급하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고 벌레를 잡아 주어야 가을에 많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실자를 사랑하고 친절로 교회로 잘 인도하여 정식으로 등록케 하고 교회 앞에 광고하며 환영을 받으며 목사님의 축

복 기도를 받도록 해야한다.

② 계속 그를 위하여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며 기도하며 힘이 있으면 성경과 찬송가를 선물로 사 주는 것이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본다.

③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그들로 하여금 새 신자부에 등록하여 단계적으로 성경을 배우도록하여 학습반과 세례반을 수료하고 일년에 세례 교인이 되어 믿음의 지름길을 가도록 권고하며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마 19:30)

④ 해당 구역에서 맡아 잘 돌아보며 구역 심방과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가지게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합심 기도하여 주며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형제애의식을 가지도록 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여야만 하겠다.

이상과 같이 전도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하여 열가지로 생각하여 보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 삼십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같은 방법을 잘 명심하고 활용할 때에는 큰 효과가 있을 줄로 안다. 전도하는 것이나 그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줄을 믿는다.

다음에는 결신자(새 신자)에 대한 양육에 대하여 생각하고 전도자들이 하나님으로 부터 받는 상급(축복)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려고 한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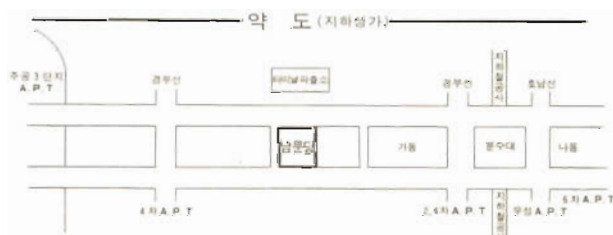
창업49년의 신용과 전통!

남문당 金正泰 집사



터미널 강남지하상가

599—3776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

- '82년도 계절학교(여름)를 종결산 하면서 -



이 종 국 집사

(교육위원회 간사)

지난 7월14일(수) 청년부 제12회 하기수양회를 선두로 막을 올린 금년도 여름계절학교는 8월24일(화) 노년부 제7회 하기수양회를 끝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주일학교 16개부중 장년새신자 I, II부와 새가정부를 제외한 13개부가 본교회와 충현기도원 및 지교회에서 실시하였다.

예년과는 달리 초중고교가 한주일 일찍 여름방학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어새, 유, 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도 예정보다 1주일 앞당겨 실시하였고 선교부는 제2 여전도회 지교회인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 소재 재인교회와 재인국민학교에서 하기선교훈련을 갖기도 했다.

여름성경학교 기간중(82.7.19-22) 안타까웠던 일은 유년부의 유순희 집사와 초등부의 이남성 집사가족이 교통사고로 순직 및 공상(당회 결정)을 당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몹시도 무덤고 걸었던 한 여름을 땀과 눈물로 충성하신 521명의 교사들에게 믿음과 능력 주심과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서 가신 분의 뜻을 이어가기로 다짐하기도 했다.

더우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천국 일꾼을 육성하는데 전념하는 충현의 교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구한다.

여름계절학교의 실시 기간은 연44일이었고 모두 4,064명이 참석하였으며 지출된 경비는 13,855,930원 이었는데 작년보다 증가(+393명)된 인원내 비하여 내핍예산 집행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1981년에는 3,671명 참석에 12,659,115원을 지출하여 1인당 평균 3,448.4원이었으며, 1982년은 4,064명 참석에 13,855,930원이 지출되어 1인 평균 3,409.4원이었고, 작년에 비해 참석 인원은 393명으로 10.6% 증가했으며 행사 참여율은 92.7%(81년은 92%)였다.

각부의 시간 계획표에 의하면 13개부의 총시간은 312.6시간이었고 1개부의 평균 시간은 24.05 시간이었다. 이 귀중한 시간들을 새 삶을 위한 어떤 변화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단언할 자신이 없다. 교사들의 열심이 학생 개개인에 전달되는 진행이 아쉬웠고 현재 우리의 평가 방법으로는 바른 측정이 어렵다 하겠다. 행사 또는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극히 행정적이고 외형적이었다.

우리에게는 발전을 기약하는 평가 방법, 평가기준 등이 아직은 분명치 않다. 비교적 타교회에 비해 세분된 계절학교 결과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 작성도 주교가 통일되지 않아 교사의 반복 교육의 절급함을 다시 느끼게 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제삼 강조하고 싶다. 계절학교도 주일의 분반공부와 마찬가지로 주일학교가 목격하는 교



◇ 유년부 여름학교 마지막날 '영의국교에서 가진 전선운동회

육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겠지만은 계절학교 교육내용의 구성이나 프로그램 진행방법 등은 확실히 다를 수 밖에 없고 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점이 계절학교의 특성이라 하겠다.

계절학교의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피교육자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가운데 가르치려는 사람의 의견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듯한 감을 주고 있으며 프로그램과 그 진행방법에 있어서 발전되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실시하지 못하고 전제적인 준비만을 끝내고 실시함으로 계획서의 의도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실시하여 다수의 인원이 참

석한 것에 의의를 갖는 예도 있었다.

금년 여름의 특징 중에는 유년부가 끝날 오전까지만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영회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준비한 순서대로의 체육대회를 가정으로 어린이들이 교사들과 한데 어울려 구슬땀을 흘리며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음은 큰 수확이었고, 선교부의 선교가족 훈련은 현지 사정의 악조건과 사전교육과 훈련의 미비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값비싼 훈련도 치루었다.

앞으로 모든 행사에 있어서 바람직한 계획은 소수가 하더라도 준비는 각 분야별로 참가하는 전교사가 하도록 하고 전체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 내용과 행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정관리 면에서도 식비와 간식비가 72.6%로서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반면 특별활동이나 학습훈련 및 생활훈련을 위한 지출은 너무나 낮아 10.6%였다. 이의 개선책의 일환으로 83년도부터는 수양회비를 수입으로 잡지 아니하고 식대 항목에서는 교사(강사포함) 식대 및 강사접대 만을 다루기로 하였다.

주교 각부의 지도자와 부장단에서는 교회의 결정을 모든 교사와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합심하여 협

력하는 일면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큰 여운이었다. 평소 주일공부나 행사를 통한 생활훈련과는 다소 다른 집단생활을 통한 생활훈련의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는 미흡함이 있었는데 대학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가 학생 훈련을 위한 시간과 예산 배정에서 극히 소극적이었다.

계절학교의 바람직한 교과내용 구성과 운영방법에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겠으나 이러한 의견들이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해되고 추진될 때 알찬 수확을 거둘 것이라 확신한다.

더우기 세성전으로 교육장소가 이전되었을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주일학교 각부의 주일공부나 계절학교시의 교육방법, 프로그램과 그 진행방법에 대한 면밀하고도 세심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리라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그 어느때보다도 천국일꾼을 키우는데 있어서 지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건강하고 충실한 지체를 끌고루 갖춘 전체를 항상 생각하며 우리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와 성도와 교사가 깊은 관심과 열심을 불태울 때 우리들의 천국일꾼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할 것이다.



각종전자제품도매

• 취급품명

1. 칼라T.V., 냉장고, 세탁기, 전축, 비디오, 녹음기, 밥솥, 밥통, 찐스렌지, 믹서, 커피포트, 에어포트, 다리미 등 가전제품 일괄.
2. 비디오 촬영·녹화(결혼, 회갑연, 관광, 각종 행사 출사)

• 본 점포의 특징

1. 본 점포는 철저한 애프터서비스가 보장되는 일류 메이커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2. 본 점포는 유통과정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필요하신 물건을 대리점이나 타 전자센터에 가격을 알아 보시고 본 점포에 다시 가격을 알아보시면 많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전화주문 하시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5. 어떤 전자제품이라도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종 합 상 사

261-1188·266-9226

대표 오 정 현 집사
오 정 수 집사

오늘날 십자가 없는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많다. 세속화신학, 희망의 신학, 진화론신학, 과정신학, 존재신학, 역사신학 등 그 이름도 다양하다. 이러한 신학의 영향은 현대인들을 신앙부재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특히 젊은이들은 허위적 허무주의로 맹돌임하고 있다.

위르겐 몰트만이 그의 “희망의 신학”에서 “종말론”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음과 부활”등 성경적 용어로 장식하지만 그의 체계는 그리스도에게라기 보다 마르크스주의에 더 힘입은 것이다. 신앙과 죄의 회개를 통한 인간 영혼구원과 내세 문제와는 상관도 없다. 이들은 “악”은 인간이 아닌 극복치 못했으나 진화의 과정 속에서 마침내는 극복하게 될 허약과 불완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죄로 죄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성경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갈 1:4, 요일 2:15-17, 엡 2:1-5) 세속화 신학자들은 이 세대(세속 Secular)를 악한 세대가 아니라 선한 세대라 하면서 이 세대는 “성인된 인간의 표정”(존 로빈슨: 신에게 솔직이)이며 “기독교 전리의 전진적 활동”(알티저: 기독교 무신론 복음)이라고도 하며 “대 공에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형태”(하비 콕스: 세속도시)라고까지 했다.

이들은 이 세상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사이며 교회와 세계의 구별은 철폐되어야 하고 교회는 정치와 혁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신의 역사적 사명의 선언(알티저)과 십계명 돌판의 파괴(플레처)로 말미암아 무너진 기독교 폐허위에 “십자가 없는 사랑의 형이상학”을 건설하기도 한다.

와그너는 플레처의 상황윤리를 비판하여 “이들은 죄인이면서 죄인됨을 인정치 않고 사랑할 능력을 잃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타락한 인간의 창조주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이라 했다.

벤 뷔렌은 복음을 세속적 의미로 해석하여 신앙을 구원의 지식으로 생각지 않고 ब्ल릭(Blick-인생관)으로 생각한다.

하비 콕스와 몰트만은 기독교 유일 종교사상을 포기하고 타종교 특히 불교에 대한 접근과 공산주의

(천 마르크스주의)와의 대화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이’, 하비콕스의 ‘세속 도시’ 등 다수 저서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선전되고 있다. 이러한 책들은 낙관적이며 문화적인 음조로 기록되어 있어서 현대인들 특히 젊은 지성인들에게 매력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판적인 입장에서 읽을 것이요 신앙으로 수납하기 위해서 읽어서 안될 것이다.

3신(新)주의(신프로테스탄티즘: 네오 프로테스탄티즘): 에라스무스의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환원하여 기독교로부터 초차연성을 제거하고 윤리의 차원으로 격하시킴. 신정통주의(Neo Orthodoxy)

: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는 외치나 성경의 영감성과 무오성을 회의하고 기독교 교리와 신앙의 역사적 진리성 부인, 신복음주의(Neo Evangelicalism): 복음주의 기독교 내의 반란적 사건으로 역사적 기독교의 성경적 신앙을 타협하여 십자가의 피를 말갹게 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군중 속에서도 똑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주장하는 십자가를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십자가 자신의 증언을 똑바로 들어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말을 듣세

김언이 전도사

십자가는 말했다오
십자가는 말했다오
예수가 나를 속앓했네
십자가의 말을 듣세

예수가 저주를 받았다고
내 대신 저주 됐다고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네
우리 모두 들어보세

십자가를 지신 사실
십자가를 지신 사실
예수가 나를 사랑했네
십자가의 말을 듣세

내 맘에 그림으로 그려졌네
내 눈에 밝히 보였네
그 생명 쏟아서 사랑했네
우리 모두 들어보세

십자가는 이루었네
십자가는 이루었네
예수가 나를 화목케 했네
십자가의 말을 듣세

주님의 몸된 교회 이루었네
유대인 이방인으로
새 사람 만들어 화목케 했네
우리 모두 들어보세

십자가는 가져왔네
십자가는 가져왔네
예수가 나를 위로했네
십자가의 말을 듣세

무한한 축복을 가져왔네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 보내어 위로했네
우리 모두 들어보세

십자가는 말한다오
십자가는 말한다오
예수가 나를 보증했네
십자가의 말을 듣세

성령의 약속의 성취라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그 약속 이루어 보증했네
우리 모두 들어보세

의료사업 위해 기도를



엘리야 겔간 선교사

(ELIJAH GERGAN)

우리의 주와 구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사랑하시는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보내주신 편지와 거기에 실린 교회의 자세한 모든 소식을 접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홍목사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애도하오며 저는 홍목사님과 함께 당회장님 댁에서 나누었던 숭별의 저녁식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때를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로 인해서도 주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은 여기 카길지역의 복음사역에 계속 축복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파르카치크와 판니카르에 두개의 전도소를 열었습니다.

파르카치크에는 직물 짜는 센터를 세워서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소의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또 강변에는 뚝을 설치해 농경지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만 물론 전도사역이 한조가 되어 일부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판니카르에는—파르카치크에서 20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데—도서관과 청년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파르카치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카길에서는 시민 중 어떤 사람들이 영어—중급 학교를 세웠는데 저희가 2명의 유능한 기독교인 교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저의집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봉사할 여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소망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빌어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님을 통해 보내 주신 선교비(4,200달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한 곳에 쓸 수 있을까를 연로하신 몇몇 유지되시는 어른들과 의논했더니 모두가 다 카길지역을 위해 필요한 이동병원차를 마련하는데 쓰기로 찬동하였습니다. 비록 이 의료사업 계획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주님을 증거하는 데는 아주 좋은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와 의약품 및 차량의 나머지 잔금을 치루는데 10,000달러가 더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정말 다시 한번 이 선교비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여기있는 저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과 또 한 9월에 시작될 티벨 기독교인 협의회 총회와 티벨 교회의 강화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마치 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합된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주님께서 풍성히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엘리야 겔간 드림

“45도의 뜨거운 열기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뜨겁게 되새기며—



김 동 표

제1신

성령님의 귀한 은혜로 다시금 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생활하는 이곳 생활 때문에 소식이 너무 늦은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간도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 평안함을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건축 설계(Shop Drawing) 및 현장의 건축관계 모든 일을 주관하는 공사과의 일도 함께 맡고 있어서 작업시간이 오전 6시30분부터 저녁9시까지이고 캠프와 작업장 간의 거리는 자동차로 40분이 소요됩니다.

교회출석 인원은, 전체 180여명 가운데 25명(지난 주일)입니다. 너무 적은 숫자이어서 많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예배는 이곳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리야드 청운교회에서 드리는데 이 교회는 서울신학교를 졸업한 강일용 전도사가 시무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곡동에 있는 청운교회에서 파송된 전도사입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준비한 것이 성경공부 모임인데, 지난 6월3일 첫 공부를 시작해서 6월24일까지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실을 마련해서 그 곳에서 모이는데 이곳은 목요일이 우리나라의 토요일과 비슷해서 빨리 퇴근할 때는 8시부터 2시간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저녁시간에 영화를 상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뺏

겨 전도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이곳의 형편을 고려하여 모두 가정용을 떠나있는 같은 처지이기에 가정생활에 관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가정부에서 가르치는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의 교재로 참석한 성도들 모두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아주 열심입니다.

먼저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공부하는데 피곤도 있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어 나갈 것인가, 서로 서로 새물음을 더하는 것을 볼 때 더욱 많은 성도들이 모일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곳 날씨는 올해는 별로 덥지 않아서 요즘 낮기온은 최고 42℃~45℃ 정도이고 최저기온은 32℃~30℃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55℃ 정도였는데 한결 지내기가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선교부 기도회 때마다 틈틈이 이곳을 위하여 기도해주십시오. ① 목요일 성경공부 모임을 위하여 ② 계속되는 작업에 영혼까지 지쳐서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③ 믿는 성도들이 더욱 열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교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27)

제2신

귀한 사람으로 다시금 소식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한

달 동안의 “라마단”(회교의 금식절기) 기간이 끝나고 기념하는 축제도 23일까지 모두 끝나고 이제는 조금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저녁 마지막 기도 시간엔(5번째) 온 상가가 전부 문을 닫는데 불을 대낮과도 같이 밝게 밝혀놓고 문만 닫고 있고, 사람들은 밖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식된 저들의 행위에 슬퍼집니다. 몇몇 진실히 믿는 <무슬렘> 사람들은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경건스럽게도 보이지만 생명이 없이 헛된 수고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불쌍해집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또 한달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며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하여 가르쳐주신 내용도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주신 목사님에 비해 반이라도 소화를 시켰는지 여름 기간에 다시한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성경공부하는 그룹은 매주 목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잘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7~8명이 모이나 더욱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중에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매일매일의 작업이 고달픈 일과이지만, 고통 속에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더욱 인내하게 되며 내 이웃의 어려운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여건과 뜨겁고 삭막한 곳에 보내신 것도 앞으로 어

떠난 곳에(밀림 속이나 사막 가운데 불모지 등) 가서도 견딜 수 있는 일대를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역훈련이라 생각하고 충현교회 선교주일학교 학생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청운교회는 지난 주일(23일)부터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오전 8시, 2부는 오전 10시로 두차례 모이고 저녁예배는 종전과 같은 오후 8시, 수요일예배 대신 여기서는 화요일예배를 오후 8시에 각각 드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여호와니시, 여호와이레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7/25)

제 3 신

매월 받아보는 "월간충현"은 메말라 애타는 이곳의 심령들에게 생수와도 같아, 다시금 성경에 충실하게 되고 우리들의 생활을 회개하며, 우리는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소식을 언제나 전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 저희 회사의 물이(다른 회사도 거의 같은 실정) 좋지 못하여 속이 아픈 환자, 특히 담석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이면 2~3명이 응급으로 병원에 후송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치료가 잘 안되어 귀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들 조심하고 있으나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이곳 목요일모임에서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는 성도들도 몇분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지만 빨리 완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리야드는 먼지가 많고 비는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더욱 안 좋습니다.

온도는 높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여 기관지도 참 좋지 않습니다. 야외에서 하루종일 작업하는 분들은 물을 1인당 거의 3리 이상 마시므로 위장에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하지만 갈증에 견디지 못하



고 있습니다. 탈수 때문에 조금으로 정제된 것을 먹고 있지만 소화는 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곳에 있으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를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어느 곳에 가셔도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공해로 공기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이곳 사우디에 비하면 낙원과도 같습니다. 가장 심한 이곳에서 담석증, 기관지염, 위장장애 등에 걸리지 않고 또 낮게 해 주시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기온은 낮기온이 섭씨 42℃~45℃ 정도가 되어서 지내거는 훨씬 좋아졌으나 덥기는 참 덥습니다.

목요일성경모임은 계속되고 있으며 모이는 사람이 불어나지는 않아도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9월까지는 배가운동을 실시하려 합니다.

저희가 예배에 참석하는 리야드 청운교회에서 우리 회사 성도들이 교회일반관리, 청소, 수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 세운 단독 교회이므로 더욱 관리를 철저히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곳 저희 현장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일반노동자 파키스탄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다 무슬람이라서 가까이 접촉하여 전도할 수 있는 기

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이곳에서는 전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만 더 이상은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을 종교경찰에 알리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생활로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해보곤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항상 제 생활의 첫번째가 되시며 회교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시 51:6

이 말씀이 저의 간증이 되기 바랍니다.

주안에서 김 동 표 올림

◇ 현지주소

김 동 표(GAH)
Woo Chang Const Co., Ltd
P O Box 7339
RIYADH 11462
Saudi Arabia



해외선교지 ·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과송번호 제7번 개척교회인 뿌차왕이교회(페트르스 스와디 전도사 시무)가 78년 4월 설립 후 장족의 발전으로 완전 자립케됨. 예배당과 사택 및 수도시설을 했으며 장년 92명, 어린이 72명(6월말 현재)임.

중부 자바 또 다른 지역에 이를 대체하여 하르도 전도사가 까창안 촌락에 교회개척사역 시작함. 의료선교사 후보자 선정도 진전되고 있음.

[기도 제목]

- ① 한인교회의 더욱 부흥과 발전 및 선교사역의 확장
- ② 선교사님 내외분의 건강과 할렘루야 선교회관의 신속한 건립.

○애굽—이준교 선교사

애굽 복음주의 교단의 이스타화 누스목사님이 한국 신학자 회의에 참석하시므로 본부의 영접을 부탁하셨는데 이번 귀국하셔서 당회장님과 최석주 장로님 앞으로 감사의 편지 보내오심. 선교사님 장남 석신군이 애굽 현지인 중학교에 입학 자격은 얻었는데 자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메리칸대학의 언어공부도 9월 20일 등록함.

[기도 제목]

- ①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교육 위해.
- ② 아랍어 언어훈련의 발전과 애

굽 현지선교의 발전.

- ③ 한인교회의 부흥 발전과 교포 사회의 복음화.

○서독—육호기 선교사

[기도 제목]

- ① 선교사님 가족과 한인교회 위해
- ② 현지 독일인 및 미국인 선교의 확장 발전.
- ③ 선교수양관 건립과 한독찬송가의 출판.

○칠레—유재일 선교사

- (1) 한인교회 새성전 부지에 입당, 현지인 운전기사 겸 사찰을 채용하고 교회는 은혜 중 부흥하고 있음.
- (2) 8월28일 칠레 제1고아원을 정기방문, 말씀과 선물을 증정, 매주 신앙지도의 시간을 허락받아 복음 전파하려고 함.

(3) 8월29일 토코빠자 교회 지원금 전달함.

(4) 원주민 주일학교 계획을 완성하고 9월5일 3시 개회예정, 이를 위해 원주민 교사 3명을 채용하고 초청장도 준비함.

(5) 교포선교를 위해 신앙도서 및 아동도서 수집을 부탁함.

(6) 금년 10월15일 어린이날을 기하여 칠레 전체 39개 고아원에서 2명의 모범어린이를 선발 시상하며 전도집회를 거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정부로부터 허가를 이미 받았으며 인쇄물과 상품은 본부에 청원하여 준비 중에 있음.

(7) 알헨티나 중앙교회의 지원금

이 미화송금 동결조치로 어려운 상태이나 내년도 부터 생활비만이라도 자립하려는 계획이심.

[기도 제목]

- ① 한인교회의 안정부흥과 발전을 위해 또한 감사의 기도.
- ② 칠레 원주민 선교 위한 계획과 행사의 은혜중 성공 및 복음의 열매 풍성함.
- ③ 선교사님과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과 은혜중 평강.
- ④ 생활비 자립계획의 성취와 보다 큰 선교활동 위한 활동후원비 증가.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원주민 수재 위문금품 전달 및 개척교회 2개처 생활비 보조.

[기도 제목]

- ① 교회의 안정과 부흥위해
- ② 파라과이 교포사회의 경제회복과 안정을 위하여.
- ③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일본—유병세 평신도 선교사

연례휴가로 8월1일부터 14일까지 귀국하셔서 선교회 임원들의 영접을 받으시고 남전도회 월례회, 신길동교회에서 보고, 모교회의 부흥을 감사하면서 너무 모르는 분이 많아서 서떡하셨다고.

[기도 제목]

- ① 완악한 고장에서 복음사역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권능의 역사 나타남.
② 남아 있는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

○호주—김태현 선교사

[기도 제목]

- ① 선교부의 안정과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 위해.
② 호주선교의 큰 비전과 전도의 문 열리고 언어의 신속한 해결.

○홍콩—이만렬·염영택 선교사

[기도 제목]

- ① 홍콩 선교부와 마카오 개척교회의 안정과 발전.
②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성령충만하심.

○벨기에—김성완 선교사

- (1) 당회장님과 일행 일곱분 영접함.
(2) 약 570킬로미터 떨어진 서독의 육호기 선교사님 주최 독일 평신도 수양회에 4명 참석.
(3) 이삿짐 부친 것 이재야(8월 5일) 도착, 파손 및 분실품 일체 없음.

음을 하나님께 감사, 또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4) 어린이 주일예배를 본부에서 보내준 교재 사용하여 8월 8일부터 실시, 초등부용 교재 및 어린이 찬송가와 주일학교용 시청각 교재가 있으면 좋겠음.

(5) 현대의학이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는 대사관 가족 병자심방, 기도부탁하심.

(6) 광복절기념 야외예배를 아르덴 국립공원에서 기념행사후 드릴 예정인데 전도의 문 크게 열리도록 기도 부탁하심.

(7) 투우병대학 총장과 편지로 유학생 기숙사 건물 한채를 장기간(예—99년간) 빌리기 위한 협의를 시작함, 특별기도 부탁드리.

[기도 제목]

- ① 지금까지 특별한 은혜주신 주님께서 위의 기도 제목들에 더욱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② 선교사님과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과 은혜의 풍성함을 위해.
③ 어린이 위한 교재와 자료를 보내 주시도록.

○본부 소식

1. 서독 튜빙겐대학에서 일반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난 8월 18일 당회장님과 함께 귀국하신

박용삼 집사님은 8월 23, 24일 선교실행회 제2회 세미나, 8월 29일 선교회 월례회 및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2회 교역자 장로 교회성장세미나(충현기도원)에 참여하시며 특강을 담당하시고 9월 3일에는 주교 선교부 개강예배에서는 "언어학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특강하시느라고 눈코 뜰 사이없이 바쁘셨음. 주교 강의는 2주간 더 계속될 예정이며 박사님은 현재 고대 독문과에도 출강중이심.

특별히 선교현지에 아직 남아 계시며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사모님과 아드님의 조속한 귀국과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주교 선교부와 본부 지도교역자이신 오치용 목사님과 선교현신자 학생 2명이 합동신학원에서 주최하는 선교특별집회와 세미나에 본부 지원으로 참가 중이심.

주강사이신 피터 바이엘하우스박사님은 튜빙겐대학의 선교학교수로 세계적인 복음주의 선교운동가 이시기에 한데 박용삼 평신도 선교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 이시기에 하도.

(선교부 류국남감도사 제공)

□ 물맷돌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히브리서 5:7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주 예수께서 실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말합니다. 당신도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드린 그 간구가 아무리 큰 고통 속에서 드린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가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5:8) 당신은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을지대면, 당신 앞에 주님이 가져오는 한 당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영예를 저졌습니까? 당신은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가져오는 갈로 같이 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영을 메고 내게 배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마 11:29)

주일행사문제 시정 촉구

— 경북지역노회를 결의 —

경북지회 8개노회가 지난 주간 일제히 가을노회를 개최하여 교회부흥과 성장에 따른 제반회무를 온힘해 처리하고 폐회했다.

경북노회는 한국교회 역사의 귀한 자료노회록 영인본을 발간 배포했고, 대구노회는 일본의 역사 왜곡사건에 대한 성명을 내도록 총회에 현의키로 했으며 경청노회는 신학교(총신) 이사를 총회총대6인이상 파송하는 노회에서만 파송할 것을 결의했다.

브라질 선교사로

— 강성철목사 파송 —

총회 선교부(부장 최동진목사)는 지난 9월1일 오후 8시 신현교회당에서 강성철선교사의 브라질 파송 예배를 드렸다.

이날 파송예배는 선교부장 최동진목사사회와 최두명장로의 기도, 총회장 최성원목사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자」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된 강성철목사는 총신대학 신학부,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아세아 선교신학연구원 설립

— 한국·일본·자유중국 공동과정으로 —

아세아 선교신학 연구원이 중화민국 대남시 북길5가 6번지에 설립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등 아세아 지역의 목회자들이 특수선교의 사명감을 갖고 고급학력과정의 선교신학을 배우게 된다.

82학년도 부터 신학(교의·구약·신약)전공과정과 선교학, 종교학, 그리고 연구생을 모집케 되는데 지원자격은 정규대학 졸업후 신학교 졸업자에 한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화민국 3국 신학교수들에 의해 강의가 진행되는 동신학연구원은 오는 10월 20일까지 원서를 마감하고 수업을 갖게 된다.

동 신학원의 한국 책임자는 이주영목사(칼빈신학교 학감)이며, 동교 원장은 대만신학의 교수로 밝혀졌다.

大神총회 무기정회

— 총회장 선출못한채 —

예장 대신측 제17회 총회가 지난 8월13일 대한신학교 강당에서 회집되었으나 개회 하루를 지내고 이튿날 무기정회로 막을 내렸다.

개회 벽두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이튿날 오후 4시까지 10차례의 투표를 거듭하면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16회 총회장인 김세창목사와 최현목사가 경합을 벌였는데, 2인 모두가 투표자의 3분의 2를 넘지못해 결국 정회하고 말았다.

83년도 신앙월력 제작

— 총회본부에서 —

총회와 총회회관 건립위원회(위원장 정태성장로)는 83년도 신앙월력을 주문받는다.

총회회관 건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키 위한 동 월력제작은 작년부터 총회본부가 직접 제작하여 전국 교회에 배포하고 있다.

이번 신앙월력도 이익금은 총회회관 건립기금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전국주련 28차 총회

— 회장에 박종덕장로 —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제28차 정기총회가 지난 8월 24일 서울 평안교회당에서 회집되어 제28대 회장에 박종덕장로(남서울)를 선출했다.

새로선임된 박종덕회장은 신뢰받는 교사상을 다짐했다.

새로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종덕, 부회장, 김종옥(대구), 김선택(경기), 이근성(인천), 이근신(경청), 김정웅(동서울) 서기 김종택(수원) 부서기 김의중(김제) 회록서기 이순구(대전), 부회록서기 홍덕표(경서) 회계 이상영(경북), 부회계 김중운(충남) 총무 오영호(황해), 간사 정덕규(동평양)

목회신학원 4 회졸업식

총회 목회신학원 제4회 졸업식이 지난 8월 27일 오전11시 신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운영위원장 최동진목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졸업식은 장성철목사의 기원, 총회장 최성원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이번 회기 졸업자는 12명이다.

김대인(황해), 김동구(경중), 김동권(진주), 김종원(제주), 서제도(남서울), 손계복(경기), 여홍근(경북), 원희천(동서울), 유근언(황해), 이기만(황동), 이덕수(수도), 허영구(경청).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불수욕 더욱 그리하자"(히 10:24, 25)

8월의 새 교우

● 1지구

미아 2구역 박성남
월 계 구역 신대일
광희 3구역 성태식
미아 4구역 장원익
수유 2구역 김영희
미아 7구역 김충영
미아 7구역 이미용
정릉 2구역 신용욱
율지 3구역 위성화
월곡 구역 하중섭
번동 구역 강금자
미아 2구역 지은덕

● 2지구

임사 A구역 김숙자
망우 1구역 이영환
홍익 구역 조동근
강동 구역 윤경옥
길동 구역 정혜선
마장 구역 윤병규
홍익 구역 권종덕
마장 구역 김상규
전동 구역 배병용
성내 구역 전상숙
구의 2구역 이홍열
전호 2구역 정병남
면목 5구역 김옥순
종곡 4구역 이우식
구의 3구역 채수희

● 3지구

행림 1구역 김선환
잠실 4구역 정충례
신당 5구역 정효철
시영 3구역 유덕수

● 4지구

행림 1구역 박효신
잠실 4구역 문영자
신당 5구역 장옥추
시영 3구역 유덕수
역삼 구역 박효신
성남 1구역 문영자
강남 구역 장옥추

● 5지구

필동 7구역 이승현
신길 구역 김중하
상도 1구역 이영휘
신림 1구역 김권열
안양 1구역 박영미
사당 1구역 김성운
상도 3구역 오순애
봉천 3구역 손주종
남대문구역 정복희
남대문구역 이금순

● 6지구

공평 1구역 전상봉
목동 구역 김찬호
광명 구역 윤재우
신정 구역 노재인
망원 1구역 이결순
망원 1구역 김정애
인현 1구역 강현식
공평 1구역 김상준
공평 1구역 손혁규

● 7지구

송명주
갈현 구역 허만선
응암 2구역 이용삼
조동 2구역 공귀성
송무 2구역 최규도
효자 구역 차병길
망원 1구역 김명미
장신 4구역 정대엽
오장 1구역 안미란

결혼

- 최영희양(제일성가대원) 8월 13일
- 이영순양(이덕빈씨 한금희집사 딸) 9월 4일
- 백석기군(쌍문구역)과 최명실양(홍은구역) 9월 4일
- 전광호군(대치구역)과 박찬주양(불광구역) 9월 4일
- 김광성군(김용식씨 우순정집사 아들)과 민옥기양(장위구역) 9월 7일
- 김장근군(본교회 중등부 부지도) 9월 14일

- 김명실양(장옥순집사 딸, 재이성가대원) 9월 17일
- 오명신양(고오중락장로 손녀 김영자 권사 딸) 9월 18일

별세

- 홍연불권사(김공량집사 부인) 8월 16일
- 허소담권사(장명숙집사 모친) 8월 27일
- 오중환씨(방배 2구역 오세익씨 부친) 8월 31일
- 김복조씨(마포구역 정순이집사 아들) 9월 10일

총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에배후
 - 매주 수요일에배후 9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타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1번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초월면사무소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9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가셔서 광주 초월 14번을 신청



유년부실 모니터 설비

2 부예배시 동시예배

교회는 10월3일 첫주일 부터 날로 증가하는 예배참석 성도를 원만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유년부실(본당하층)에 TV모니터 시설을 갖추고 동시예배를 드릴 수 있게했다. 그동안 자리가 없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음 예배시간까지 기다리거나 돌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예배에 마음놓고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여러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한편 같은 시간에 유년부실에서 분반공부를 하던 중등부는 따로 교회 근처의 주부교실 빌딩을 빌어 사용하기로 했다.

김수성 목사 부임

청년부 지도목사로

전임 이승근 목사의 도미유학으로 공석중이던 청년부 지도목사로 김수성 목사가 새로 부임했다. 김목사는 고 이명달 전도사의 외손자로 지난 77년부터 79년 까지 본교회 산업전도부 전도사로 수고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이 청년부 지도를 맡은 김목사는 전임자의 계획과 목표를 존중하여 지금까지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보충할 것이 있으면 약간씩 보충, 개발해 나가겠다고 부임소감을 밝히면서, 이웃과 교회와 조국에 크게 봉사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피력

하기도 했다.

총신72회로 군목출신인 김목사는 지난 8월31일 예편, 본교회에 부임했으며 김영호씨와 성금옥여사의 4남4녀중 장남으로 미혼이다.

고등부 선교음악회

본당에서 성황리에 마쳐

제6회 선교음악회가 고등부 면려회 주최로 지난 9월25일(토) 오후 5시30분 본당에서 개최됐다. 부장 김광신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동선교음악회의 설교는 최봉호 목사가 담당했고 이어서 제2부로 열린 음악회에는 고등부 성가대의 합창“주는 왕의 왕”의 수곡과 손소영양의 소프라노 독창을 비롯, 윤혜란양의 바이올린 독주, 창조출연, 정소원양의 플룻독주, 대학부 선배들의 우정 출연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되어 선교음악회의 밤을 더욱 빛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도사업」

(1)「전도위원회 내지분과」에서는 올해도 7.8월중 총 16개팀의 놓여촌 전도대를 파송하였으며, 지난 8월 28일(토) 오후 2시에 평가회를 가졌다.

(2)「전도위원회 기획분과」에서는 ①그동안 발간된 「충현의 말씀」(1호~34) 합본 200부를 발간하였다. ②또 「경희의료원」등 13개 문서전도처에 충현의 말씀, 전도지, 충현지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배포하여 전도를 계속하고 있다. ③지난 8월 15일날 K. B. S. 방송전파를 통해, 본교회 장 정일목사등 5명이 출연한 광복 37주년 기념 대북 방송이 30분간 시행되었다.

(3)「전도위원회 총동원 분과」에서는 지난 총동원 전도의 달에 접수된 태신자및 결신자 대상으로 문서전도 제1서신을 발송하였다.

(1,120통)

(4)「전도위 특수분과」에서는 ①매주 15개처의 직장에서 직장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②또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해군본부 교회에서 박동실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군종사병및 사관생도등 100여명이 모여 신앙수련회를 가졌다. ③산업전도회 의료분과에서는 주일 환자치료및 매물도 어린이 들과 지교회인 장락교회 부근 주민 135명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다.

대학부 회장에 한명성군



대학부는 지난 9월5일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보고와 회칙개정 및 신입 정무회장 선거가 있었다. 투표결과, 회장:한명성, 부회장:최현주, 총무:박승원, 이정혜 등이 선출되어 앞으로 대학부면려회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새로 선임된 한명성군은 “개혁 보다는 현재의 치한 상황 가운데서 현재의 상황을 좀더 알차게 하고 싶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는데 1962년 3월20일생으로 현재 총신대학 신학과 2학년 재학중.

성경연구원 개강

5백여 성도 2학기 등록

지난 9월 6일 개강한 82년도 제2학기 성경연구원 등록 수강신청 성도는 월요낮반을 비롯한 20개반에 9월22일 현재 총 489명이 등록하여 성경공부를 통한 신앙향상과 생활향상을 꾀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는 동성경연구원의 성경공부 코스에 보다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83년도 사업목표 교육위 입안 위한 모임가져

16부 주일학교 지도 및 부지도 교역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사업목표와 프로그램 설정을 위한 특별 모임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간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릴 이번 모임은 83년도의 교육위 사업목표를 숙의, 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성경교육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한편 교사철야기도회가 9월20일 유년부 주최로 새성전에서, 9월 23일 어린이 새신자부 주최로 충현기도원에서 각각 개최됐다.

◇토막소식

- 이승근목사
○ 청년부를 지도하던 이승근목사는 유학차 가족동반하여 지난 8월25일 도미했다.
- 중등부 부지도 김장근 전도사가 지난 9월14일 이금란양과 본교회 당에서 결혼식을 거행.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1,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년새신자 1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은 사람은 장년 새신자 2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시간은 각 12시로, 1부는 새신자부실에서, 2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 김성만 선생(김원남 목사 4남 강화도 강화중학교 교사)이 지난 9월23일 뇌염으로 치료중 소천했다. 24일 오후2시 장례식 거행. (장지는 충현동산)

인사이동

◇교육위원회

1. 임명

- 유치부 남영수(여) 임시교사
이영숙(여) 임시교사
임유미(여) 임시교사
안인숙(여) 정교사
유년부 이명숙(여) 정교사(정정)
중등부 김영운(남) 임시교사
고등부 이지결(남) 임시교사
김태순(여) 임시교사
김치원(남) 임시교사

2. 퇴임

- 유치부 이영숙(여) 임시교사
김은희(여) 정교사
중등부 허동성(남) 임시교사
고등부 박양희(여) 정교사
김차선(여) 임시교사
안용현(남) 임시교사
김명순(여) 정교사
이병두(남) 정교사

교회소식



각종 통계

1982.9.5(매월 첫주 기준)

구분		남	여	계		
예	주일	I부	198	363	총세대수	4,487
		II부	451	1,086		
		III부	419	790		
		IV부	178	229		
		V부	158	416		
배	주일	저녁	266	532	교인	남 4,217
	삼일	저녁	161	365		여 6,105
주	어린이새신자부		25	20	총수	계 10,322
	영아	부	235	186		
일	유치	부	159	180	세례	남 2,314
	유년	부	205	233		여 3,843
	초등	부	238	222		계 6,157
	중등	부	183	178	유아세례	남 654
	고등	부	127	135		여 531
	대학	부	81	71		계 1,185
	청년	부	65	107	학습교인	남 324
	장새부 I		41	92		여 429
	장새부 II		25	77		계 753
	장년	부	28	329	원입교인	남 925
교	노년	부	43	121		여 1,302
	산업교육	부	25	93		계 2,227
	신교	부	방	학		
	새가정	부	25	35		
합계			3,336	6,060		9,396

10월의 행사

◇ 교 회

1 일/정기당회

◇ 예배위원회

28~29일/새레문답

30일/제 1 성가대 성가합창제 참
석(극동방송주최)

31일/성찬예식 거행

◇ 전도위원회

10일/남전도회 월례회

17일/여전도회 월례회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24일/전도위원회 월례회

◇ 교육위원회

10~11일/16부주교교역자특별모임

24일/교육위원회 월례회

25~28일/교사단기훈련

◇ 심방위원회

3 일/제직회

10일/권사회 월례회

17일/심방위원회 월례회

24일/구역권찰회의

◇ 건축위원회

31일/정기 월례회

◇ 자산관리위원회

17일/정기 월례회

◇ 재정위원회

3·17일/정기 월례회

◇ 출판국

10일/월간 중현 10월호 발간

24일/정기 월례회

편집후기

◇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십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열매를, 소망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었습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시는 주인의 책망을 다시 듣게 되거나 앓을까 염려됩니다. 금년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 석달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파고 마지막 탐과 정성을 다하여, 마침내 실과를 맺어드릴 수 있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께서 책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잡지나 교양, 신앙 서적은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서 떼지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축복으로 우리들과 같이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월간중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중현 편집위원 □

위원장/조 현 명

편집위원/

김 차 생 조 선 근

손 경 수 오 태 용

김 종 주 김 정 태

이 형 수

1982년 10월호

월간 중 현

The Monthly Chung Hyeon

제10권 제 9 호

통권 제103호

1972년 4 월 30일 창간

1982년 10월 5일 인쇄

1982년 10월 10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편집부장/장 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중 현 교 회

1000 -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 가 36

전화/274-2171 · 2172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교회설립 29주년 기념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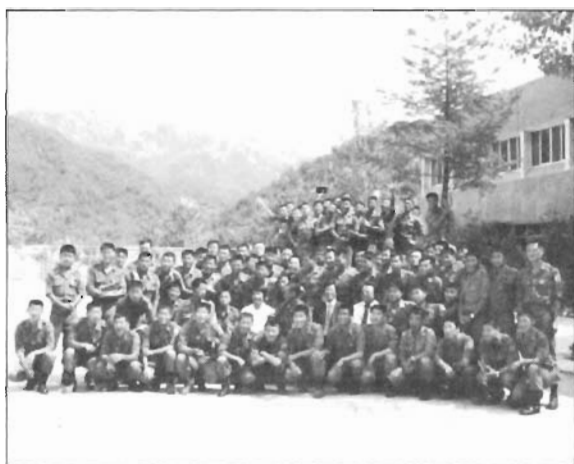
◇ 제2회 교회성장세미나



◇ 29주년기념 20년근속자 11명표창



◇ 성경연구원주최 피택장로 교육모임



◇ 전도위원회 주최 ○○부대 군중훈련



◇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 일시귀국 기념촬영

모든 기도를 들으심이여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린 곧잘 멈추어 의심한다오—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정 들으실 수 있을지
 허나 쉬지않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고하면
 호리고 컴컴하던
 그 영혼 환히 밝히시리라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짐은 더 가벼운 양하고
 슬픔은 녹아져서
 우리 모습 더욱 밝으리라—
 첫걸음에선 외롭고
 어찌할 바 모를지라도
 기도의 열쇠로 가슴을 열면
 우리의 열린 가슴에
 사랑하는 주님 들어오시니
 느끼기만 하고
 시작할줄 몰랐던 그 기도
 거침 없이 말씀드리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어
 당신의 그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새로운 힘 주시기에

— 헬렌 스타이나 라이스

이 책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